‘침묵의 카르텔’ 깨야 세상을 움직인다

이해리의 무비노트

신경숙 표절 논란 둘러싼 ‘문학권력’ 시끌
지난해 영화계도 ‘슈퍼 갑’ 극장 비판 이슈
‘입단속·입조심’보다 할 말 하는 사람 필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몇 년 전이다. 영화 취재를 처음 시작할 무렵 선배로부터 얻은 팁 하나가 있다. 보통 개봉을 앞두고 열리는 시사회 직후, 그 영화에 어떻게든 연관된 관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영화 감상평 문의다. 그럴 땐 영화가 최악의 수준만 아니라면 ‘되도록’ 재미있다고 말해주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다. 영화 한 편 만들어내기까지 우여곡절 겪었을 그들에게 굳이 솔직한 평을 건네 개봉 전부터 김을 뺄 필요가 있겠느냐는 조언이기도 했다. 물론 공감했다.

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크고 작은 부침을 겪으며 성장해온 한국영화이니만큼 역시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과 시선으로 관련 기사를 써왔다고, 지금은 기자 일을 그만둔 한 선배는 말했다.

꼭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영화만큼 자유롭게 평가받는 장르가 없지만, 반대로 영화를 담아낸 기사만큼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 주관은 대부분 해당 영화가 지닌 장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부각되곤 한다. ‘꿀잼’ ‘핵노잼’ 식의 SNS용 감상평이 아닌 다음에야, 한국영화에 관한 기사에는 대개 긍정적인 ‘플러스알파’가 작동한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다.

요즘 ‘침묵의 카르텔’이란 말이 화제다.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학권력으로 불리는 몇몇 출판사와 문인사회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수식어로 통한다. 얼핏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저것 살피느라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입을 닫았다는 뜻이다. ‘입단속’ 내지 ‘입조심’으로 읽을 수도 있다. 비단 문학계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지난해 말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제작자인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가 침묵을 깬 사건은 그래서 더 주목받았다. 영화 만드는 입장으로 본다면 ‘슈퍼 갑’인 극장들을 향한 날선 비판을 꺼냈다. 대다수가 문제라고 여기지만 ‘실명’으로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이슈에 과감하게 나서 화제였다.

24일 영화 ‘소수의견’이 촬영을 끝내고 2년 만에 개봉했다. 여기에는 할 말을 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도 옮기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의 말은 ‘소수의견’이라고 치부된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침묵보다, 비록 소수일지라고 할 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싶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에프엑스 설리, 탈퇴설 SM “아직 결정된 바 없다”

9월 컴백을 추진하면서 ‘탈퇴설’에 휩싸인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사진)가 ‘잔류냐, 탈퇴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에프엑스는 9월 중 정규앨범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7월 악플과 루머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활동을 중단한 설리의 거취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25일 또 다시 설리가 팀을 탈퇴해 연기자로 전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설리의 에프엑스 탈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설리의 향후 팀 활동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탈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설리가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SM 측은 에프엑스의 컴백이 임박한 만큼 설리와 다른 멤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설리는 작년 7월 에프엑스 3집 ‘레드 라이트’ 발표 직후 “지속적인 루머와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연예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에프엑스는 컴백 2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부터 설리의 에프엑스 탈퇴설, 멤버들과의 불화설에 시달렸다. 5월 초에는 한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설리가 빠진 에프엑스가 출연해 탈퇴설에 시선이 모아졌다. 당시 SM은 “설리는 연예활동 중단에 따른 휴식기간 중이라 광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쉴 틈도 없이 분장 점검!’ 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MBC 드라마아 ‘화정’ 세트장에서 연기자 차승원, 이연희, 김재원(왼쪽사진부터)이 수시로 분장을 점검하며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인조·정명공주 이야기가 시청률 기폭제 됐으면”

차승원, 광해 유배로 MBC ‘화정’ 하차

“광해의 퇴장이 ‘화정’의 인기에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MBC 월화사극 ‘화정’에서 광해의 유배와 함께 퇴장을 앞둔 차승원이 아쉬움 섞인 소감을 밝혔다.

차승원은 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MBC 드라마아 ‘화정’ 세트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광해를 떠나보낼 때 굉장히 짠한 기분이 들 것 같다. 실제로 광해는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극 중 유배지 섭외가 끝났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며 농담 섞인 아쉬움을 드러냈다.

23일 22회가 방송된 가운데 차승원은 7월 14일 방송될 28회에서 광해의 유배를 끝으로 ‘화정’에서 하차한다. 차승원은 “개인적으로는 광해의 세자 시절에 대한 설명이 짧았던 것이 아쉽다”면서 “월화극 1위라지만 사실은 아쉬움이 큰 1위다. 내가 퇴장하고 나서 인조와 정명공주의 이야기가 시청률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어촌편’에 이어 ‘화정’까지, 출연작이 연이어 사랑받는 차승원은 “나를 특정 이미지로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다”면서 자신의 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내게 이상적인 배우는 2.5 배우다. 일본말로 니마이(둘째), 산마이(셋째)라고 하는데 나는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런 차승원은 ‘화정’이후 곧바로 강우석 감독의 새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로 그 변신을 이어나간다. 연이어 사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죽어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나리오와 대본을 보고 안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한국인의 정서가 짙게 묻어난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삼시세끼-어촌편’ 멤버인 유해진, 손호준과의 재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차승원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멤버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계절을 바꿔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화정’은 욕망으로 가득 찬 왕손 능양군(인조)이 등장,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파란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용인 |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3년 6월 26일〉

서태지와 아이들 의상 규제

최근 막을 내린 KBS 2TV ‘프로듀사’는 톱가수의 의상을 둘러싸고 ‘뮤직뱅크’ PD의 미묘한 신경전을 그려 시선을 모았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무대 의상이 논란을 부르는 모습은 실제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1993년 오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KBS 2TV ‘토요대행진’에 출연하려다 포기했다. 2집 ‘하여가’의 인기 속에 막 방송활동을 시작한 즈음이었다. 멤버 이주노 등의 레게 헤어스타일과 힙합 의상이 방송사 측의 규제에 맞닥뜨린 것이었다.

방송사 측은 ‘단정한 의상’을 요구했다. 그 직전 KBS 홍두표 사장이 일부 연예인들의 의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자연예인들의 귀고리와 장발 스타일, 찢어진 청바지와 왜색풍 혹은 히피 의상 등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태지는 “새로움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가수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시선 사이에서 고민했다. 결국 서태지와 아이들의 ‘토요대행진’ 출연은 무산됐다.

뒤늦게 서태지와 아이들은 머리카락을 풀고 수수한 옷차림을 선택했다. 그리고 7월 초 대전엑스포 특집 1TV ‘엑스포 축하쇼 한밭 한빛’에 출연할 수 있었다.

이후 연예인 의상에 대한 방송사의 규제는 더 강력해졌다. 1994년 10월 지상파 방송 3사는 삭발 스타일이나 장발, 치마패션, 남자 연예인의 귀고리, 배꼽티와 같은 노출 의상 등을 규제했다. 녹화와 방송에 앞서 제작진이 ‘복장 검사’에 나서는 풍경도 연출됐다. 그룹 쿨의 유채영을 비롯해 이주노 등이 해당됐다. 신성우와 김종서는 긴 머리카락을 묶은 채 출연해 뒷머리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애썼다. ‘너 없는 동안’의 치마패션을 선보인 김원준은 노래 콘셉트를 고려해 그 후속곡에서 옷차림을 바꿨다. 하지만 강산에 등 일부 연예인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방송사들은 1997년 7월 또 다시 의상 규제에 나섰다. 이듬해 PC통신 유니텔이 500여명을 대상으로 가수들의 의상과 액세서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문제 있다”와 “없다”가 팽팽히 맞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 마우스

● “1위는 처음이라 좋으면서도 겁났다.”(가수 백아연) 25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최근 자작곡 ‘이럴거면 그러지 말지’로 1위를 기록한 소감을 밝히며.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